

# 3

## 같은 내용, 다른 표현

◆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글로 써 봅시다.



시를 읽고 시에서 말하는 이가 무엇을 하는지 떠올려 봅시다.

### 가위바위보

난, 난 울 엄마가  
제일이라고  
순이는 제 엄마가  
제일이라고.

난, 난 순이 엄마가  
다음 간다고  
순이는 울 엄마가  
다음 간다고.

서로들 우기다가  
가위, 바위, 보.

뉘\* 엄마가 젤\* 좋은가  
가위, 바위, 보.



● 뉘: 누구   ● 젤: 제일

## 번데기와 달팽이

아침마다 나는  
 홑이불을 뚝뚝 말고  
 번데기가 된다.

엄마가  
 이불을 힘껏 잡아당기면  
 웅크린 알몸만 남는다.

“어서 일어나  
 껍질 훌훌 벗고  
 나비가 되어야지.”

“나, 번데기 아니야.  
 달팽이란 말이야.  
 빨리 내 집 돌려줘.”



## 흔들리는 마음

공부를 얹고  
 놀기만 한다고  
 아버지한테 혼이 났다.

잠을 자려는데  
 아버지가 슬그머니  
 문을 열고 들어왔다.

자는 척  
 눈을 감고 있으니  
 아버지가  
 내 눈물을 닦아 주었다.

미워서  
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 
 맘이 자꾸만 흔들렸다.





1 「번데기와 달팽이」와 「흔들리는 마음」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.

1 “빨리 내 집 돌려줘.”라고 말한 뜻은 무엇일까요?

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the answer to question 1.

2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온 까닭은 무엇일까요?

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the answer to question 2.

2 「번데기와 달팽이」와 「흔들리는 마음」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.

번데기와 달팽이

-----

-----

흔들리는 마음

-----

-----

3 낱말의 뜻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써 봅시다.

보기

껍질: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물질

껍데기: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

• 바닷가에서 조개  를 주워 목걸이를 만들었다.

• 꿀  을 삶은 물을 마시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.

4 「번데기와 달팽이」와 「흔들리는 마음」 중에서 하나를 골라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일기로 써 봅시다.

20	년	월	일	요일	날씨	
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						

## 5 글을 읽고 '내'가 겪은 일을 시로 나타내어 봅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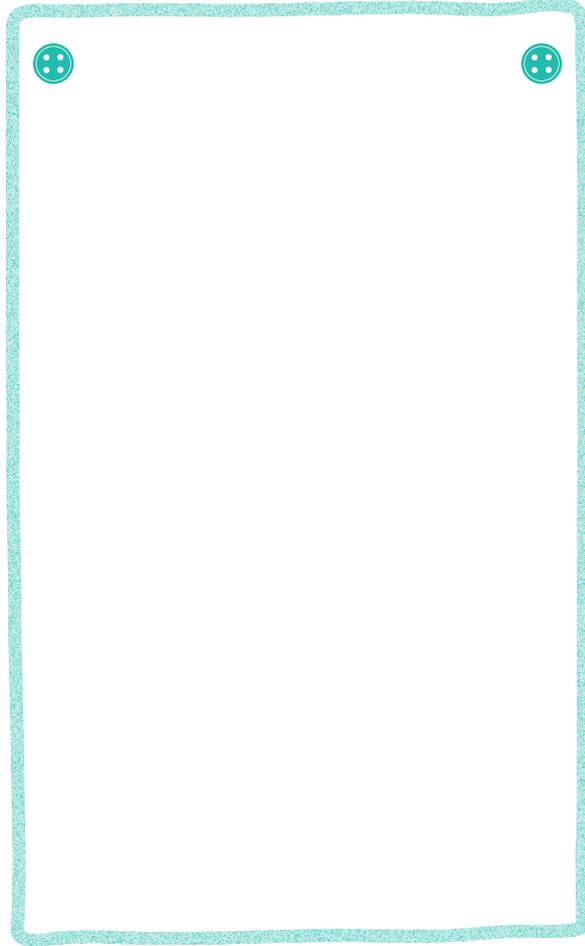
운동회 날이다.

오전 첫 순서로 달리기를 하였다.  
올해는 꼭 3등 안에 들어서 공책을  
받고 싶었다. 몇 줄이 뛰어나가고  
드디어 내가 달릴 차례가 되었다.  
가슴 속에서 누군가가 방망이질을  
하는 것 같았다.

선생님께서 깃발을 올리시자마자  
나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.

그러나 결과는 4등이었다. 4등은  
꼴찌나 마찬가지이다. 힘이 쪽 빠  
졌다.

천천히 엄마 얼굴이나 보면서 뛰  
어갈 걸 그랬나 보다.



### 배움 다지기

- 시에서 말하는 '내'가 겪은 일을 파악해 글로 썼나요?

